석고보드시장 공급과잉 우려

동부화학 1200만평 공급개시 … 금강·벽산 과점체제 종식

금강과 벽산의 과점체제로 매년 10%대의 견실한 성장을 해오던 국내 석고보드시장에 95년10월부터 동부화학이 가세하면서 시장재편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94년까지 극심한 공급과잉을 보인 석고보드시장은 95년 건축경기의 불황까지 겹쳐 시장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된 가운데, 동부화학의 신규참여로 공급과잉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되는 등 시장전망을 매우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석고보드 수급추이

(단위 : 1000평, %)

구 분	1994	1995	
	수 량	수 량	증감률
생 산	30,000	33,000	10.0
수 내수	26,100	29,000	11.1
요 수출	-	500	-
합 계	26,100	29,500	13.0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연간 생산능력은 금강 2200만평, 벽산 1500만평으로 3700만평 규모였으나, 95년 동부화학이 1200만평으로 신규참여, 총생산능력은 4900만평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비해 생산은 94년 3000만평에서 95년 3300만평으로 10%의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수규모는 94년 2610만평에서 95년 11.1%증가한 2950만평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선발인 금강, 벽산은 동부화학의 신규참여 이후 각사가 점유하고 있는 내수시장 확보에 주력하면서도 일정부분 시장이 잠식될 것으로 예견, 동남아를 비롯한 해외 수출판로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발인 동부화학은 선발인 금강, 벽산에 비해 저가와 차별화된 제품이미지 전략을 앞세워 시장공략에 나서고 있으며,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격은 96년1월 현재 금강, 벽산이 평당 40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동부화학은 이보다 낮은 3200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일부에서는 동부화학의 신규참여로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석고보드시장에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시장확대, 가격하락으로 96년 시장성장률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
즉 기존 금강, 벽산의 과점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각사간 기술개발이나 판로개척노력을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경쟁체제로 들어서면서 극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96년 생산기업들은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이윤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각 생산기업들은 한정된 국내석고보드시장에서 해외수출, 새로운 용도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학저널 1996/1/22>